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식과 폐회식이 열린 라자망갈라(Rajamangala) 국가 경기장. 태국 정부가 태국 국왕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고 제13회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축한 경기장으로, 6만여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다.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요 경기장이 열린 '타마삿'(Thamasat) 대학 본부.

■ 주요경기 열린 '타마삿' 대학

태국 민주화 족적 남긴 명문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요 경기장이 열린 '타마삿'(Thamasat)대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정부요원을 배출하고 있는 곳. 1974년 학생 혁명 때는 혁명의 중심지였으며, 1976년 군사 쿠데타 때는 압제에 항거하는 등 타이 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전통 있는 학교다. 대학임에도 교복을 입고 있으며, 태국 최초의 대학인 출라롱콘 대학과 태국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태국은 방콕 시내의 교통체증과 선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벗어난 타마삿 대학 2캠퍼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요 경기장을 신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자원봉사자 운영 어떻게

영어회화 능통 대학생 선발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학생들의 행사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대학생 위주로 선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국의 대학생들이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친절적이고 세계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한 배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각 학교별로 실시했다.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선발 모집공고를 낸 뒤 신청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일주일도 안 돼 1만2천여명이 지원했다. 유니버시아드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자원봉사자는 8천명. 조직위는 각 학교별로 면접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선발토록 했다. 선발기준은 우선 영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이었으며, 친절과 우정이라는 FISU의 이념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또한, 영어 이외의 제3국 언어 회화 가능자도 포함됐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몰린 것은 대회기간 동안 영어 등 다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국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회기간 중 선수촌으로 사용된 타마삿 대학 기숙사 전경.

U 대회 개최 맞춰 신공항까지 건설



<제 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① 태국 방콕 (중)

2007년 제24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방콕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회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갔다.

특히 경기장 등 시설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쏟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다.

태국 정부가 1998년 제13회 아시안게임 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선수촌과 각종 경기장을 신축·증축 해왔기 때문이다.

대회 개최식과 폐회식이 열린 라자망갈라(Rajamangala) 국가 경기장은 이미 1998년 완공돼 제13회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사용됐다.

이 경기장은 태국 국왕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됐다. 라자망갈라 경기장은 놀랍만한 디자인과 세계 최일류 체육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6만여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고, 2개의 수영장과 6천명이 입장할 수 있는 농구장과 멀티 스포츠 홀까지 동시에 갖춰졌다.

여기에 아시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사격장도 들어서 있다.

선수촌이 위치한 타마삿 대학에는 샤워·화장실·텔레비전·인터넷 연결 등이 모두 가능하고 2인 1실로 1만3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선수촌 역시 아시안 게임 때 사용됐다.

“세계 최고 경기장” 완벽한 선수촌 준비

예산 70% 정부 지원 30%는 기업 후원

또한, 타마삿 대학 교정은 국제기준 시설을 능가하는 5천 좌석의 수영장과 다이빙풀이 있으며, 2천 500명과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좌석수를 자유롭게 변화하게 할 수 있는 6개의 체육관과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스타디움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 및 개최 국가와 세계 각국의 매체와 연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때문에 방콕 U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했고, 캠퍼스를 공원 삼아 휴식을 즐겼다.

태국이 이처럼 경기장을 한 대학에 집중시킨 것은 방콕 도심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고 테러 위험이 상존해 선수들이 한 장소에서 휴식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선수촌과 경기장 개·보수에 만 심혈을 기울였고, 방콕시는 매끄러운 도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확장과 신호 개선 등에 힘썼다.

태국 정부는 또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민 운동에 치중했다.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관광정책도 잘 돼 있는 만큼 방콕 시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따뜻함과 친절함이 항상 배어 있어 이마저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예산이 문제였다. 대회를 치르는 데 예산은 20억 바트(한화 66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직위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됐다. 전체 예산 중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30%는 국제·국내 스폰서를 통해 충당했다.

대표적인 스폰서로는 태국 굴지의 유전개발 및 정유회사인 PTT사였다.

이 회사의 경우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대회 차량에 대한 주유카드를 지원해 대회 조직위의 재정적인 숨통을 터줬다. 타이 항공은 아프리카와 남미·아시아 등 후진국 참가 선수들의 항공료를 70%가량 싸게 제공하고, 선수촌에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현물로 후원하는 스폰서들도 많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친절함이 배어있는 시민들·스스로 참여하는 스폰서 등으로 결집한 힘은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는 밑거름이 됐다.

/방콕=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Gwangju City Police Department, featuring a table with various not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itle is '변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A row of small advertisements for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including '장르합수원', 'SONY', and other local businesses.